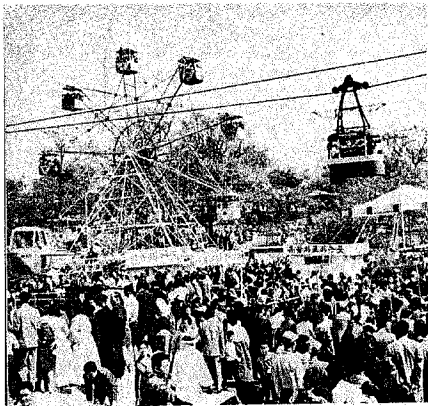


◀기쁜 우리 날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인터넷에 떠도는 젊은이들의 유머입니다. 군데군데 거친 표현을 한 부분도 있지만 젊은이들의 유머기에 이해바랍니다. “이기동” 세대인 우리는 거론된 이름이 누구인지 모를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 물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 ‘바다’ 에게는 뛰어난 노래실력을 주셨지만 눈 사이를 멀게 하였고,
- ‘유진’ 에게는 아름다운 얼굴을 주셨지만 너무 넓은 이마를 주셨다.
- ‘이효리’ 에게는 섹시함을 주셨지만 너무 이른 나이에 주름을 주셨고,
- ‘옥주현’ 에게는 뛰어난 노래실력과 말솜씨를 주셨지만 살과 큰 콧구멍을 함께 주셨다.
- ‘이진’ 에게는 아무 것도 안 주셨으나 불쌍히 여겨 다리털을 선사하셨고,
- ‘장나라’ 에게는 깜찍함을 주셨지만 빈약한 가슴을 주셨다.
- ‘문희준’ 에게는 나름대로 능력을 주셨지만 깜빡 잊고 뇌를 안 주셨고 대신 많은 안티들을 보너스로 더해 주셨다.
- ‘송승헌’ 과 ‘강타’ 에게는 멋진 외모와 함께 멋진 이름도 주셨다.(송승복 안철현)
- ‘보아’ 에게는 모든 걸 다 주신 듯하나 긴 다리를 빠뜨리셨고,
- ‘유니’ 에게는 섹시함과 귀여움을 주셨지만 싸가지를 안 주셨다.
- ‘박경림’ 에게는 좋은 성격을 주시고 굽은 목소리도 주셨으며,
- ‘신승훈’ 에게는 감미로운 목소리도 주시고 큰 머리도 주셨다.
- ‘김제동’ 에게는 재치있는 유머를 주셨지만 얼굴에 신경을 안 쓰셨고,
- ‘유승준’ 에게는 현란한 춤 솜씨를 주셨지만 한국비자를 안 주셨다.
- ‘권상우’ 와 ‘최지우’ 에게는 멋진 외모와 예쁜 외모를 주셨으나 혀를 만들다 마셨고
- ‘임창정’ 에게는 재간과 함께 고운 피부 주시는 걸 깜빡 잊으셨다.
- ‘차태현’ 에게는 귀여움을 주셨으나 짧은 목도 주셨고,
- ‘김정화’ 에게는 미모와 함께 남성미도 주셨다.

이로서 하나님은 평등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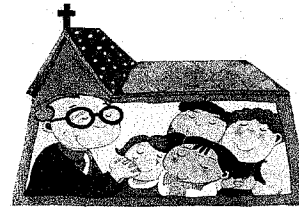
◀그때 그랬지 ▶ **창 경 원**

그때는 몰랐습니다. 창경원이라고 하면 즐거운 놀이동산인줄 알았습니다. 동물원,케이블카가 있는 창경원은 학교 소풍이나 가족 나들이의 최고였습니다. 봄이면 벚꽃놀이 또한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왕실을 비하시키려 일본이 왕궁에 동물과 놀이기구를 들여왔다는 것을 안 순간 어린나이에도 참 서러웠습니다. 야외로 소풍을 나가면 남자들은 양복에 백타이를 매고 여자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 입던 시절, 비록 세련되지 못한 놀이문화였어도 창경원 가던 설레임 만큼은 지금보다 더 행복했었습니다.

교 회 목 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 인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빌4:13) 갈 보 리 교 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9권 12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7년 3월 25일
☎ 369- 5077. Howe St. City(Ak Girls Grammar School Hall)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배당에 갔더니.....”



“예배당에 갔더니 대머리 까진 목사가 눈 감아라 하더니 신발 훑쳐 가더라.”

버스가 두 시간에 한번 밖에 안 다니는 촌 동네에 어느 날 갑자기 훌연히 교회가 들어섰다. 도회지 물이 훌쩍 들은 듯한 스물 대여섯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전도사가 오더니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

땅을 정리하고 흙 벽돌을 손수 만들어 자그마한 교회를 지었다. 교회 바닥은 흙바닥에 장판을 얹어 놓은 게 전부였다. 시린 손을 호호 불어 가며 물 걸레, 마른 걸레질을 해서 반짝 반짝 광을 내 놓았다 현관 양 옆에 어설피지만 나무로 신발장을 만들어 놓았다.

늘어나는 교인들의 신을 모두 올려 놓기에는 부족하여 교인들은 신을 벗어 현관 앞에 어지러이 늘어 놓고 들어가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거의 어김없이 매 주일 서너 사람이 신이 없어졌다고 발을 뚱뚱 구르곤 했다. 그래도 신발 잃어 버릴까 봐 교회 못 다니겠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다만 짓곳은 동네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위와 같은 노래를 만들어 교회 앞을 오가며 목청껏 불러 젖힐 뿐 이었다. 머리가 벗어진 젊은 전도사는 아무리 아이들이 그런 노래를 불러도 화를 내기는 커녕 계란을 삶아 먹이고, 코를 닦아주고, 연필을 한 자루씩 돌려 보내며, 공부를 잘해야 이담에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일일이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런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새로운 영농 기술도 전해 받아, 온 동네가 양계로 성공해 남부럽지 않은 부자 동네가 되었다. 거의 모든 동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물론, 후일 그 교회의 장로가 된 사람 중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료 대리점의 사장이 된 사람도 있다.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마치는 목회를 하셨다. 시도 때도 없이 눈을 감으라고 하는 바람에 그 후로도 신발은 더욱 많이 잃어 버렸지만, 교회는 날로 부흥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머리는 그의 나이 삼십이 넘을 무렵이 되자,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머리카락만 남아 있게 되었다.

아이들의 노래 소리는 더욱 그 소리가 커졌다.

“예배당에 갔더니 대머리 까진 목사가 눈 감아라 하더니 신발 훑쳐 가더라.”

◀말씀따라 행하기▶

죄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기를 두려워할 절박할 때가 있다

◀인품따라 행하기▶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도
그걸 깨지지 않게 지키는 것은
인간의 의무

주일예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주일찬양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Hymn	50장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59(고난주간 1)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도자
찬송 Hymn	331장	다같이
기도 Pray		이근평 안수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19:28-44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교 Sermon	나귀타신 왕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그때 그 무리들이	다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학생부교사	다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처음으로 하는 McDonald에서 아르바이트, 첫 급여 모두를
건축헌금으로 드린 이제 겨우 College F6인 ***의 헌금봉투에는
성전을 떠받칠 만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

총액: \$310,947

◆4월 예배위원◆

◆4월의 교회력◆

일자	기도	응답송	안내
1	이금선		본당:권사
8	이재영		현관(1)김교섭 최재학
15	임병숙		현관(2)장현중 정덕수
22	임해자		새교우:이광희 이근평
28	정관영		윤주야 장유진

	주일	예배와 모임
1	종려주일	인도자, 구역장모임(30) 성금요연합예배(6)
8	부활주일	
15		
22		여성교회월례회
29		남성교회월례회.

『교회생활』 2007 신앙생활: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 위해 1분	『교회등록』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아동,학생:오후 1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수요 7:00 pm

- 1.오늘은 이삭줍기 주일
*한 달동안 모은 Silver Coin,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얼마나 도움을 줄 액수가
되겠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십니다
- 2.모임
*4여성교회(59년-63년생): 성가대연습실(Hall 계단 아래)
*정기당회:Dressing Room
- 3.안수집사 교육:<일시> 28일(수) 저녁 6:30. 성가대연습실
- 4.2006년 결산보고를 위한 제직회 <일시> 28일(수) 수요예배 후
- 5.인도자 구역장 모임: 4월 모임은 3월 30일(금) 새벽기도회 후
*4월 모임을 한 주 앞당겨 모입니다
- 6.5여성교회 헌신예배(예고) <일시> 4월 4일(수) 수요예배
- 7.5남성교회 “한달 특별새벽기도회”(예고) <일시> 4월 매 금요일 새벽기도회
*무심코 터벅였던 발걸음, 돌아보면 이제 그냥 지낼 수 없습니다. 별빛을 등진
삼야 밝히고 내 가족과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 4월의 새벽으로 지내겠습니다.
- 8.College 학생들을 위한 ‘Youth Vision Conference’(예고)
<일시> 4월 10(화)-13(금). <장소> 오슬랜드대학 & 아오테아 광장
*자녀들의 신앙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문의:조재근 집사)
- 9.수요예배 <신명기 성경공부>. 수요일 저녁 7:30
*말씀을 공부하는 수요일 밤, 깨달음이 있는 자리...

◀착한 시인들▶ 아버지

조현정

아버지와 오랜만에 같은 잠자리에 누웠다.
조그맣게 코고는 소리
벌써 잠이 드신 아버지
많이 피곤하셨나보다.
작지만 야문 손 잡아보고
주름진 얼굴 살며시 바라보다
어느새 그렇그렇 맺히는 눈물
아버지도 사람이셨구나.

성황당 나무처럼 마을어귀 장승처럼
백년이 한결같은 줄로만 알았는데
춤고 배고프고 아프고 슬픈
춤고 배고프고 아프고 슬픈
아버지도 사람이셨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내 할아버지가 가신 길을
아버지도 가시겠지.



농촌진흥청